

# ‘창작은 이제 자산’...캐릭터 IP 예술 현재·미래 조망

은암미술관 청년작가 기획전...오는 30일까지

## 빛고을작가 13명 참여 ‘캐릭터 IP 예술’ 공공 전시로 풀어내 급변하는 글로벌 예술환경 능동적 대응 해외 진출 기반 마련

창작을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고 확장하는 흐름이 전시장 안팎으로 이어진다.

은암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문화예술 생태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청년작가 기획전 ‘캐릭터 IP 예술,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창작물을 지식재산(IP)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예술 환경 속에서 지역 청년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예술계에서는 창작물을 생산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지고 있다. 작품은 더 이상 하나의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가의 창작 세계를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고, 이를 주제적

으로 관리하고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캐릭터 IP 예술’이라는 동시대적 개념을 공공 전시로 풀어내며, 순수예술과 산업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시도로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전시 결과물이 향후 확장을 위한 ‘프로토타입’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시를 통해 저작권 기반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제 교류로 연결한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확장하는 구조다.

전시에는 광주 지역 작가 13명이 참여해 IP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신작을 선보인다. 이후에는 지역 갤러리와 연계한 확장 전시가 이어지며,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아시아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동시대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도 눈길을 끈다.



골드원작 'SPRAY\_UNION'

아이와 부모, 연인 등 다양한 관람층을 고려해 전시 접근성을 높였으며, 흥미로운 방식으로 현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약 3천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며, 예술 향유의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종기 은암미술관 관장은 “지금의 예술은 작품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창작의 가치가 어떻게 확장되고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시대”라며 “이번 전시는 지역 청년작가들이 자신의 창작 세계를 IP라는 언어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와 만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이두환작 'Artist'



엄기준작 '체리봄 자매 버전(사진 위)과 임은혜작 'שמלחן 휴식'

## ‘틀’을 깬 무대...‘심’과 ‘숨’ 관객과 눈 맞추다

광주시립합창단 오는 29일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 IV’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열린 음악회가 시민들과 만난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 IV’를 개최한다.

합창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어울림’ 시리즈는 올해 ‘합창음악의 역사’라는 대주제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한다.

그 첫 번째 무대인 이날 공연에서는 서양 음악의 근간이 되는 중세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이르는 초기 합창 음악의 정수를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대별 합창 음악의 변천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의 서막은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그레고리오 성가’로 연다. 이어 르네상스 시대 인간 중심 미학이 담긴 마드리갈과 프랑스 샹송을 선보인다.

화려함의 극치인 바로크 시대 헨델과 비발디 작품을 거쳐, 동물 소리를 익살스럽게 묘사한 ‘동물들의 합창’까지 엄숙함과 유쾌함을 넘나드는 레퍼토리가 관객을 찾아간다. 합창단의 정교한 하모니 위에 더해지는 친근한 해설은 클래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관객들에게 인문학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시립합창단 ‘마티네 콘서트’ 공연 모습

공연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본 공연 시작 20분 전에는 지휘자와 관객이 답소를 나누는 ‘마티네 토크’이 진행된다.

이번 무대는 대극장 로비라는 열린 공간을 활용해 합창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관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며, 단원들의 숨결과 합창의 미세한 떨림까지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석 1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씻김굿으로 전하는 위로와 정화

내일 남도국악연주단 ‘씻김굿’ 무대...채정례 명인 참여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국악연주단 공연 ‘씻김굿’을 선보인다.

씻김굿은 서남해안 지역에서 전승돼 온 낡고 오래된, 망자의 생전 한과 기억을 씻어내 저승으로의 이행을 돕는 의식이다.

특히 ‘씻김’ 과정에서 향물과 쑥물, 맑은 물로 혼과 넋을 씻어내는 점이 특징으로, 다른 지역 굿과 구별되는 의례적 요소로 꼽힌다.

‘진도씻김굿’은 단순한 천도의례를 넘어 망자를 위로하는 동시에 산 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죽음을 예술적 형식으로 승화한 전통 공연으로 평가된다.

이번 무대는 채정례 명인이 참여해 진정성을 초점을 맞춘 씻김굿을 선보인다.

채 명인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아니지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전통을 이어오며 위로와



씻김굿 중 ‘초기망석’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온 단골로 알려져 있다.

공연 이후에는 관객에게 ‘복떡’을 나눔 예정이다. 복떡은 굿을 마친 뒤 나누는 떡으로, 공동체의 결속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명진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